

[8] 2월

초 1일(병술) 종일 비가 왔다. 발포(鉢浦 \* 만호 황정록(黃廷祿)) 여도(呂島 \* 권관 김인영(金仁英)) 순천(順天 \* 부사 권준(權俊))이 모여 들었다. 발포 진무(鎭撫) 최 이(崔巳)가 두 번이나 군법을 범했으므로 처형했다.

초 2일(정해) 늦게 갬. 녹도(鹿島) 가장(假將) 사도(蛇渡 \* 첨사 김완(金浣)) 흥양(興陽 \* 현감 배흥립(裴興立))들의 배가 들어왔으며 낙안(樂安 \* 군수 신호(申浩))도 왔다.

초 3일(무자) 맑음. 여러 장수들이 거의 모였으나 보성(군수 김득광(金得光))이 아직 안왔다. 동쪽 상방(上房)에 나가 앉아 순천, 낙인, 광양(\* 어영담(魚泳潭))들과 한참동안 의논하였다. 이날 경상도에서 옮겨 온 공문에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김 호걸(金浩乞)과 나장(羅將) 김수남(金水男)등 명부에 올린 해군 80여명이 도망갔다고 하며 또 뇌물을 많이 받고 잡아 오지 않았다고 하므로 군관 이봉수(李鳳壽)와 정사립(鄭思立)들을 비밀히 보내어 70여명을 찾아서 잡아다가 각 배에 나눠주고 김호걸과 김수남들은 그날로 처형했다. 오후 8시쯤부터 비바람이 크게 불어쳐 배들을 겨우 구호했다.

초 4일(기축) 늦게 갬. 성 동쪽의 9발쯤이나 무너졌다. 객사 동헌에 나가 공무봤다. 오후 6시께에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밤새도록 그치지 아니하고 바람조차 몹시 사나워 배를 겨우 구호했다.

초 5일(경인) 경칩날이라 독제(蠶祭)를 지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더니 느지막해서 비로 소 갔다. 아침 식후에 가운데 대청으로 나가 공무봤다. 보성군수(\* 김득광)가 밤을 도와 육지로 해서 달려왔으므로 뜰 아래 붙잡아다가 놓고 기일 어긴 죄를 문초하였더니 순찰사와 도사(都事)등이 명나라 군사를 접대할 사무를 맡아 강진, 해남 등지의 고을로 왔었기 때문이라 공술하였다. 이 역시 공부라 그 대장(大將)과 도훈도(都訓導) 및 담당 아전들을 대신 처벌하였다. 이날 저녁 서울서 온 벗 이언형(李彦亨)을 송별하기 위한 술자리를 베풀었다.

초 6일(신묘) 아침엔 흐리더니 늦게 개었다. 동트기 전에 첫나팔을 불고, 날이 밝을 무렵에 둘째나팔과 셋째나팔을 불고나서 배를 풀고 돛을 달았으나 정오에는 역풍이 불어 저물어서야 사랑(蛇梁 \* 통영군 원량면 양지리)에 달아 거기서 잤다.

초 7일(임진) 맑음. 새벽에 떠나 곧장 견대량(見乃梁 \* 거제군 사등면 덕호리)에 이르니 우수사(\* 경상우수사) 원평중(元平仲 \* 원균의 자)이 벌써 먼저 와 있기에 함께 이야기하였다. 기숙흥(奇叔欽)이 와서 봤다. 이영남(李英男) 이여념(李汝恬)도 왔다.

초 8일(계사) 맑음. 아침에 영남 우수사(\* 원균)가 내 배로 와서 전라 우수사(\* 이억기)의 기약 늦어진 잘못을 몹시 말하며 지금 곧 먼저 떠나겠노라고 하였다. 내가 애써 말려 기다리게 하고 [오늘 해 안으로는 당도할 것이라]고 언약하였더니 과연 정오에 돛을 나누끼면서 들어오므로 온 진중을 바라보고 기뻐 날뛰지 아니하는 이가 없었으나, 맞아 들이고 본즉, 거느리고 온 것이 40척 미만이었다. 이날 오후 4시쯤에 초저녁에 온천도(溫川島 \* 칠천도(七川島))에 이르렀다. 본영에 편지를 보냈다.

초 9일(갑오) 첫 나팔을 불고 둘째나팔을 불고 나서 다시 천기를 본즉, 비가 내릴것 같아 떠날 것을 그만 두었다. 종일토록 큰 비가 오므로 그대로 머무르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초 10일(을미) 아침엔 흐리었으나 늦게 맑아졌다. 오전 6시쯤에 배를 띄워 바로 웅천 웅포(熊川熊浦 \* 창원군 웅천면 남문리)에 이르니 적선들이 줄지어 정박하고 있는데 2번이나 꺾어 내어 보았으나 진작부터 우리 해군을 겁내는 터라 나올듯이 도로 들어가버리는 것이어서 끝내 잡아 무찌르지 못하니 통분 통분하다. 오후 10시쯤에 도로 영등포뒤 소진포(蘇秦浦 \* 거제군 장목면 송진포리)에 이르러 배를 매고 밤을 지냈다.

11일(병신) 흐림. 아침에 순천 탐후선(探候船)이 돌아가는 편에 본영에 편지를 보냈다. 군사를 쉬게 하고 그대로 머물렀다.

12일(정유) 아침엔 흐리고 늦게 맑아졌다. 삼도 군사가 일제히 새벽에 떠나 바로 웅천웅포에 도착해 보니 적도들이 어제와 같이 나왔다 물러갔다 하며 아무리 꺾어 보아도 끝내 한바다로 나오지 아니했다. 그래서 두번이나 뒤쫓았으나 두번 다 섬멸하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통분하다. 이날 저녁에 도사(都事)가 우후(虞侯)에게 통지를 보냈다. 명나라 장수에게 줄 군사용 물품을 배정한 것이라고 한다. 초저녁에 칠천도(漆川島 \* 七川島)에 이르자 비가 크게 쏟아지기 시작해서 밤새 그치지 아니하였다.

13일(무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더니 오후 8시쯤에야 그쳤다. 토벌에 대한 의논으로 순

천, 광양, 방답(防踏)들을 불러다 이야기하였다. 정담수(鄭聃壽 \* 어란포 만호)가 왔었다. 활과 활살 만드는 직공 대방(大邦) 옥지(玉只)들이 돌아갔다.

14일(기해) 맑음. 증조부의 제삿날이다. 이른 아침에 본영 탐후선이 왔다. 아침 식후에 3도 군사들을 모아 약속할 적에 영남수사(\*원균)는 병으로 오지 못하고 전라 좌우도 여러 장수들만 모여서 약속했는데 다만 우후가 술주정으로 망령된 말을 하였다. 기막힌 꼴을 어찌 다 말하라. 어란포(\*남해) 만호 정담수와 남도포(南桃浦) 만호 강응표(姜應彪)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같이 큰 적을 무찌르는 일로 약속하는 마당에서 이렇게까지 술들을 함부로 마시니 그들의 사람됨에 통분함을 이길 길이 없다. 가덕(加德) 첨사 전응린(田應麟)이 보러 왔었다.

15일(경자) 아침에는 맑더니 저녁에는 비가 왔다. 날씨는 따뜻하고 바람도 조용하므로 소포(\*과녁)를 걸고 활을 쏘았다. 순천(\*부사 권준)과 광양(\*현감 이영담)과 사랑(蛇梁) 만호 이어념(李英男) 소비포(所非浦) 권관 이영남(李英男) 영등포 만호 우치적(禹致績)들이 왔다. 이날 순찰사(\*이광)의 공문이 왔는데 [명나라에서 또 해군을 보내니 미리 알아서 처사하라]는 것이었다. 또 순영(巡營) 영리(營吏)의 고목(告目)에는 [2월 초 1일 명나라 군대가 서울을 회복하고 왜적은 모두 섬멸되었다]고 하였다. 저녁에 원 평중(\*원균)이 보러 왔었다.

16일(신축) 날은 맑은데 늦은 아침부터 큰 바람이 불었다. 들으니 영의정(\*정철)이 사신으로 북경에 간다고 하였다. 노비단자를 정원명(鄭元明)에게로 부치면서 그것을 가져다가 사신가는 일행에게 전하라고 일러 보냈다. 오후에 우수사가 보러와서 밥을 함께 먹고 갔다. 순천, 방답이 보러 왔었다. 밤 10시에 신환(愼環)과 김대복(金大福)이 임금이 내린 글 2통과 부찰사(副察使)의 공문을 가져와 전했다. 그래서 [명나라 군사들이 바로 송도(\*개성)를 치고 이달 초 6일에는 반드시 서울에 있는 왜적을 함락시키리라]는 소식을 들었다.

17일(임인) 흐리기만 하고 비는 오지 않았으나 종일 동풍이 불었다. 이영남(李英男) 허정은(許廷閔) 정담수(鄭聃壽) 강응표(姜應彪)들이 보러 왔었다. 오후에 우수사(\*이억기)를 찾아 보고 또 새로 진도군수로 온 성언길(成彦吉)을 봤다. 그리고 우수사와 함께 영남 수사(\*원균)의 배에 갔다가 선전관이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왔다는 말을 듣고 배를 재촉하여 진으로 돌아오다가 도중에서 선전 표신(標信)을 만나 배로 맞아 들어 위의 분부를 받들어 본즉 [급히 적들의 돌아갈 길목으로 나가서 물길을 끊고 도망하는 적을 몰살하도록 하라]는 내용이였다. 즉시로 받자 왔다는 단자를 써 주니 밤은 벌써 새벽 2시쯤이나 되었다.

18일(계묘) 맑음. 이른 아침에 행군하여 웅천(熊川)에 이르니 적세는 여전했다. 사도(蛇渡) 첨사(\*김완(金浣))로 북병장(伏兵將)을 임명하여 여도(呂島) 만호 녹도(鹿島) 가장(假將) 좌우별 도장(左右別都將) 좌우 돌격장 광양 2호선, 흥양 대장(代將) 방답 2호선 등을 거느리고 송도(松島 \*창원군 웅천면)에 북병하게 하고 모든 배들을 시켜서 꺾어 내게 하니 적선 10여척이 뒤를 따라 나왔다. 경상도 북병선 5척이 날새게 먼저 나가 쫓을 적에 다른 북병선이 뛰어 들어가 둘러 싸고 수없이 쏘아대니 왜적의 죽은 것이 그 수효를 알 수 없고 목을 벤 것이 1급이라 적의 기세가 크게 꺾여서 끝내 쫓아 나오지 못하였다. 날이 저물기 전에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원포(院浦)로 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어두운 틈을 타서 영등포 뒷바다로 돌아왔다. 사화랑(沙火郎 \*창원군 웅천면)에 진을 치고 밤을 지냈다.

19일(갑진) 맑음. 서풍이 크게 불어 배를 띄울 수 없어 그대로 머무르고 떠나지 못하였다. 남해 원에게 붓과 먹을 보냈더니 그가 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고여우(高汝友)와 이효가(李孝可)가 보러 왔었다. 그대로 사화랑에 진을 치고 있었다.

20일(을사) 맑음. 새벽에 배를 띄우자 동풍이 약간 불더니 적과 교전할 때에는 바람이 크게 불어 배들이 서로 맞부딪쳐 깨어지게 되는데 거의 제어할 길조차 없었다. 곧 호령하여 호각을 불고 초요기(招搖旗)를 세워 전쟁을 중지시켜서 여러 배들이 다행히도 크게 상하는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흥양의 1척, 방답의 1척, 순천의 1척, 본영의 1척이 서로 들이 받아 깨졌다. 날이 저물기 전에 소진포(蘇秦浦 \*거제군 장목면 송진포리)에 돌아와 물을 길고 밤을 지냈다. 이날 사슴떼가 동서로 달아났는데 순천(\*부사 권준)이 1마리를 잡아 보내 왔다.

21일(병오) 흐리고 큰 바람이 불었다. 이영남(\*소비포) 이어념(\*사랑)이 보러 왔었다. 우수사 원영공(元令公)과 순천, 광양들도 보러 왔었다. 저녁에 비가 오더니 한밤중에야 그치었다.

22일(정미) 새벽에 구름이 끼더니 동풍이 크게 불었다. 그러나 적을 치는 일이 급하므로 출발하여 사화랑(沙火郎 \* 창원군 웅천면)에 이르러 멧기를 기다렸다. 바람이 조금 자는 듯하므로 다시 재촉하여 웅천에 이르러 두 승장(僧將 \* 삼혜(三惠)와 의능(義能))과 성의병(成義兵 \* 성응지(成應祉))을 제포(濟浦)로 보내어 곧 상륙할 것처럼 하고 우도(右道) 여러 장수의 배 중에서 변변하지 못한 것을 골라 동쪽으로 보내어 역시 상륙할 것처럼 꾸미게 했더니 왜적들이 갈팡질팡하는 것이었다. 이때를 틈나서 전선을 합하여 바로 찌르니 적들은 세력이 나뉘고 약해져서 거의 섬멸을 당하게 되었는데 발포(鉢浦) 2호선과 가리포(加里浦) 2호선이 명령도 안했는데 제멋대로 돌입하였다가 그만 얕은 곳에 걸려서 적들에게 습격당하게 된 것은 통분하여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다. 얼마 뒤에 진도 지휘선이 또 적에게 포위되어 하마터면 구할 수 없게 되었는데 우후가 바로 들어가 구원해 냈다. 경산도의 좌위장(左衛將)과 우부장(右部將)은 보고도 못 본 체하며 끝내 돌아서서 구원해 내지 않았으니 그 괴씸함을 말할 수 없다. 참으로 통분했다. 이 때문에 경상도 수사에게 질문도 하였거니와 한심한 일이었다. 오늘의 통분한 것을 무슨 말로 다하랴. 모두 경상도 수사(\* 원균)때문이다. 돛을 달고 소진포(蘇秦浦)로 돌아와 잤다. 아산에서 뇌( )와 분(芬)의 편지가 웅천 진중으로 왔다. 어머니의 편지도 왔다.

23일(무신) 흐리나 비는 오지 않았다. 아침에 우수사가 보러 왔었고 식후에 원수사(元水使)가 왔고 순천, 광양, 가덕, 방답들도 왔고 이른 아침에는 소비포(所非浦) 영등(永登) 와량(臥梁)들이 보러 왔는데 원수사의 음향하고 흥악한 품을 이를 길이 없었다. 최천보(崔天寶)가 양화(楊花 \* 고양 양화)로부터 내려와서 명나라 군사들의 소식을 자세히 전하고 또 조도어사(調度御使)의 편지와 서류를 전하고 그날 밤으로 돌아갔다.

24일(기유) 맑음. 새벽에 아산과 온양에 보낼 편지와 집에 보낼 편지를 써 보냈다. 아침에 배를 띄워 영등포 앞 바다에 이르자 비가 몹시 퍼부어 바로 났 수가 없기 때문에 배를 돌려 칠천량(漆川梁 \* 거제군 학정면)으로 돌아왔다. 비가 그치매 우수가 이영공(李令公) 순천, 가리포, 성진노(\* 언길(彦吉))로 더불어 뱃놀이를 하면서 조용히 이야기하였다. 초저녁에 배 만드는 기구를 들여 보내는 일로 패자(牌字)와 흥양에 갈 공문들을 써 보냈다. 양미 90되로 자염(雌驛)을 바꾸어 보냈다.

25일(경술) 맑음. 풍세가 불순하므로 그대로 칠천량(漆川梁)에서 머물렀다.

26일(신해) 큰 바람이 불었다. 종일 머물러 있었다.

27일(임자) 맑으나 바람이 세었다. 우수사 이영공(\* 이익기)과 함께 이야기하였다.

28일(계축) 맑고 바람도 없었다. 새벽에 떠나 가덕(加德)에 이르니 웅철의 적은 오무라져서 나와 항전할 생각도 못내는 것이었다. 우리 배가 바로 김해강(金海江) 아래쪽 독사리목(禿沙伊項 \* 김해군 제산면)으로 향하였는데 우부장이 변고를 알리므로 여러 배들이 돛을 달고 급히 가서 작은 섬을 에워싸고 보니 경상 수사(\* 원균)의 군관과 가덕 첨사의 사후선(司候船)등 아울러 2척이 섬에서 들락날락하면서 태도조차 수상하므로 묶어서 원 수사에게 보냈더니 수사가 크게 성을 내는 것은 그 본의가 군관을 보내 고기 잡는 사람들의 머리를 베어 오자는 데에 있었던 때문이었다. 초저녁에 아들 염(莚)이 왔다. 사화랑(沙火郎)에서 잤다.

29일(갑인) 흐림. 바람이 영려스러워서 배를 칠천량으로 옮겼다. 우수사 이영공(\* 이익기)이 보러 왔었다. 순천, 광양들도 왔다. 영남 수사(\* 원균)도 보러 왔다.

30일(을묘) 종일 비. 뜰 아래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 [9] 3월

초 1일(병진) 잠깐 맑더니 저녁에 비가 왔다. 방답 첨사(\* 이순신(李純信))가 왔다. 순천(\* 부사 권준)는 병으로 오지 못하였다.

초 2일(정사) 종일 비가 왔다. 뜰 밑에 앉았노라니 온갖 생각이 가슴을 치밀어 올라 회포가 어지러워서 이응화(李應華)를 불러다가 한참 이야기하고 따라서 순천 배가 보내서 원의 병세를 알아 보게 했다. 이영남과 이어념이 왔다. 그들에게서 원영공(\* 원균) 옳지 못한 일들을 들으니 깊이 탄식할 일이다. 이영남이 왜놈의 작은 칼을 놓고 갔다. 이영남에게 들은 즉 강진 사람들이 살아 왔는데 고성으로 붙들려 가서 문초를 받고 왔다고 한다.

초 3일(무오) 아침에 비가 왔다. 오늘은 답청절(踏靑節)인데 흥악한 적들이 물러가지 않으므로 군사를 거느리고 바다에 떠 있으며 그나마 명나라 군사들이 서울로 들어온 여부조차

듣지못하니 민망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

종일 비가 내렸다.

초 4일(기미) 비로소 비가 개었다. 우수사가 이영공(\*이억기)이 와서 종일 이야기 하였다. 원영공(\*원균)도 왔다. 순천의 병이 대단하다고 한다. 들으니 명나라 장수 이여송(李如松)이 함경도로 들어간 적이 설한령(雪寒嶺)을 넘어섰단 말을 듣고 개성까지 이르렀다가 도로 평안도로 돌아갔다고 한다. 통분하고 민망함을 이길 길 없었다.

초 5일(경진) 맑으나 바람이 몹시 사나웠다. 순천(\*부사 권준)이 병으로 돌아간다가에 아침에 친히 전송했다. 탐후선이 왔다. 내일로 적을 치자고 약속했다.

초 6일(신유) 맑음. 새벽에 떠나서 웅천에 이르니 육지로 도망쳐 산허리에 진을 쳤으므로 관군들이 탄화과 편전(片箭)을 비 퍼붓듯 쏘아 대니 죽는 자가 무척 많았으며 사로잡혀 갔던 사천(泗川) 여인 한사람을 뺏어 왔다. 칠천량(漆川梁)에서 잤다.

초 7일(임술) 맑음. 우수사(\*이억기)와 이야기하였다. 초저녁에 출발하여 걸망포(巨乙望浦 \*통영군 용남면 ?)에 이르니 이미 날이 섰다.

초 8일(계해) 맑음. 한산도(閑山島)로 돌아와 아침을 먹고 나니 광양, 낙안(樂安) 방담(防踏)들이 왔다. 방담(\*첨사 이순신(李純信)) 광양(\*현감 어영담(魚泳潭))은 술과 안주를 갖추어 가지고 오고, 우수사(\*이억기)도 왔다. 어란(於蘭 \*만호 정담수)도 쇠고기로 만든 음식 두어 가지를 보내 왔다. 저녁엔 비.

초 9일(갑자) 굵은 비가 종일 내렸다. 원식(元植)이 보러 왔다가 갔다.

초 10일(을축) 맑음. 아침 후에 배를 띄워 사량(蛇梁 \*통영군 원량면 양지리)으로 갔다. 낙안(樂安)사람이 행재소(行在所 \*위주)로부터 와서 전하는 말이 [명나라 군사들이 진작 개성까지 왔는데 연일 비가 와서 질어 행군하기 어려우므로 날이 개기를 기다려 서울로 들어가기를 약속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첨사 이홍명(李弘明)이 보러 왔었다.

11일(병인) 맑음. 아침 후 원수사와 이수사가 함께 와서 술마시며 이야기하였다. 원수사는 몹시 취하여 동헌으로 돌아갔다. 본영 탐후선이 왔다. 돼지 세마리를 잡아 왔다.

12일(정묘) 맑음. 아침에 각 고을 공문을 처결해 보냈다. 본영 병방(兵房) 이응춘(李應春)도 공문을 정리해 가지고 갔다. 영(莛)과 나대영(羅大用) 덕민(德敏) 김인문(金仁問)도 본영으로 돌아갔다. 식후에 우수사(\*이억기)의 사처방에서 바둑을 두었다. 밤이 이슬해서 비가 내렸다.

13일(무진) 비가 몹시 오다가 늦은 아침에야 개었다. 이영공과 이첨사 홍명(弘明)이 바둑을 부었다.

14일(기사) 맑음. 여러 배들을 출동시켜서 배 만들 재목을 실어왔다.

15일(경오) 맑음. 우수사가 이곳에 왔다. 여러 장수들이 관덕정에서 활을 쏘는데 우리편 장수들이 이긴 것이 66분(分)이었다. 우수사가 떡과 술을 만들어 가지고 왔다. 저물어서 비가 크게 쏟아지게 시작하여 밤새도록 퍼부었다.

16일(신미) 늦게 갠. 여러 장수들이 또 활을 쏘는데 또 우리편 장수들이 이긴 것이 30여분이었다. 원영공도 왔다가 매우 취해 가지고 돌아갔다. 낙안이 아침에 왔기에 고부(古阜)로 가는 편지를 주어 보냈다.

17일(임신) 맑음. 종일토록 큰 바람이 불었다. 우수사와 활을 쏘았다. 그가 아주 형편이 없으니 우수한 일이다. 신경황(申景漢)이 와서 임금의 본부를 가져온 선전관(宣傳官 \*채진(蔡津) 안세걸(安世傑))이 본영에 왔다고 하였다. 그는 곧 돌아갔다.

18일(계유) 맑음. 모진 바람이 종일토록 불어 사람이 마음대로 나고 들지 못하였다. 소비포(所非浦 \*이영남(李英男))와 아침밥을 함께 먹었다. 우수사와 장기를 두어 이겼다. 기남해(奇南海 \*효근(孝謹))도 왔다. 저녁에 돼지 한마리를 잡아 왔다. 밤중에 비가 내렸다.

19일(갑술) 비. 비. 우수사와 함께 이야기했다.

20일(을해) 맑음. 우수사와 함께 이야기했다. 오후에 선전관이 임금이 본부를 가지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21일(병자) 맑음.

22일(정축) 맑음.

□ 23일부터 4월 그믐까지 빠졌음.

[10] 5월

초 1일(갑인) 맑음. 새벽에 망궤례(望闕禮)를 드렸다.

초 2일(을묘) 맑음. 선전관 이춘영(李春榮)이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왔는데 내용은 물길을 끊고 막고 도망가는 적을 죽이라는 것이었다. 이날 보성(\*군수 김득광(金得光)) 발포(만호 황정록(黃廷祿)) 두 장수가 와서 모이고 다른 여러 장수들은 정한 기일을 몰랐기 때문에 모이지 아니하였다.

초 3일(병진) 맑음. 우수사(\*이억기)가 해군을 거느리고 왔는데 많이 뒤떨어져서 유감이 다. 선전관 이춘영은 돌아가고 이순일(李純一 \* 선전관)이 또 왔다.

초 4일(정사) 맑음. 이날은 어머니님 생신이건만 적을 토벌하는 일 때문에 가서 축수의 술잔을 드리지 못하게 되니 평생 유감이다. 우수사와 군관들과 함께 진해루(鎭海樓)에서 활을 쏘았다. 순천도 모여서 약속했다.

초 5일(무오) 맑음. 선전관 이순일이 경상도에서 돌아왔기에 아침밥을 대접하였다. 명나라로부터 내게 은청금자광록대부(銀靑金紫光祿大夫)의 작품을 주었다고 하는데 아마 잘못들은 소문일 것이다. 느지막이 우수사, 순천, 광양, 낙안(樂安)과 함께 모여 앉아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했으며 군관들을 시켜 편을 갈라 활을 쏘게 했다.

초 6일(기미) 맑음. 아침에 신정(愼定)과 조차 봉( )이 해포(蟹浦 \* 아산 해암)에서 왔다. 늦게 큰 비가 쏟아지더니 그대로 종일 그치지 않아 개천에 물이 넘쳐 농민들을 만족하게 하니 다행 다행이다. 저녁 내내 친척 신씨와 이야기하였다.

초 7일(경신) 흐리되 비는 오지 않았다. 우수사(\*이억기)와 함께 아침밥을 먹고 진해루(鎭海樓)에 올라 앉아서 공무를 처결할 후 배에 올라 떠나려는데 발포의 도망갔던 수군을 잡아 내어 처형을 시키고 순천의 이방(吏房)도 입대에 관한 사무를 태만히 한 죄로 처형하려 하다가 그대로 두었다. 미조항(彌助項 \* 남해군 삼동면)에 이르자 동풍이 크게 불고 파도가 산더미 같아 간신히 배를 대고 잤다.

초 8일(신유) 흐리되 비는 오지 아니하였다. 새벽에 떠나 사량(蛇梁 \* 통영군 원양면 양지리) 바다에 이르니 만호(\*이여념(李如恬))가 나오기에 우수사 있는 곳을 물었더니 지금 창신도(昌信島 \* 남해군 창선도)에 있다 하며 군사들이 모이지 않아 미처 배를 타지 못했다고 한다. 바로 당포(唐浦 \* 통영군 산양면 삼덕리)에 이르니 이영남(李英男)이 보러 와서 수사(\*원균)의 잘못이 많다고 자세히 말하는 것이었다.

초 9일(임술) 흐림. 아침에 떠나 걸망질(巨乙望浦 \* 통영군 용남면 ?)에 이르니 풍세가 불순하였다. 우수사와 가리포(\*첨사 구사직(具思稷))와 함께 앉아 군사에 관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저녁엔 원수사가 배 2척을 거느리고 왔다.

초 10일(계해) 흐리되 비는 오지 아니하였다. 아침에 출발하여 견내량(見乃梁 \* 거제군 사동면 덕호리)에 이르러 흥양(\*고흥) 군사를 점검하고 기약한 날짜를 어긴 여러장수들을 처벌하였다. 우수사와 가리포가 와서 모여 앉아 이야기하였다. 조금 있자니 선전관 고세충(高世忠)이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왔는데 대개 부산으로 나가 돌아가는 적들을 무찌르라는 것이었다. 부찰사(副察使)의 군관 민종의(閔宗義)가 석류를 가지고 찾아 왔다. 저녁에 경상도 우후(虞侯) 이의득(李義得)과 이영남(李英男)이 보러 와서 함께 이야기하다가 밤 늦게서야 헤어졌다. 윤봉사(尹奉事) 제현(齊賢)이 본영에 이르렀다고 편지를 보내 왔다. 본영에서 좀 기다리고 있으라고 곧 답장을 보냈다.

11일(갑자) 맑음. 선전관(\*고세충)이 돌아갔다. 늦게 우수사의 진중으로 갔더니 이홍명(李弘明)과 가리포 첨사도 와 있었다. 바둑을 두기도 했다. 뒤이어 순천이 오고 광양이 오고 가리포가 술과 고기를 내었다. 얼마 지나서 영등포(\*거제군 장목면 구영리)로 적을 탐색하러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보고하되 가덕(加德) 바깥 바다에 적선 무려 2백여척이 머무르고 있어 드나들며 웅천(熊川)은 전일과 마찬가지로 하였다. 선전관이 돌아갈때 임금의 분부를 집행하는데 관해서 도원사(都元師) 체찰사(體察使)에게 보내는 3건(件)의 공문을 함 서류로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함께 떠나 보냈다. 이날 남해(南海)도 보러 왔었다.

12일(을축) 맑음. 본영 탐후선이 들어 왔다. 그 편에 순찰사의 공문과 송시랑(宋侍郎)의 통첩을 가지고 왔다. 사복사(司僕寺)의 말 5필을 중국에 보내기 위해서 올려 보내라는 지시도 왔으므로 병방(兵房) 진무(鎭撫)를 띄워 보냈다. 늦게 영남(\*원균)이 왔다. 선전관 성문개(成文溉)가 보러 와서 피난중에 계신 임금의 사정을 자세히 전하였다. 통곡 통곡할 일이다. 새로 만든 쇠총을 비변사(備邊司)에 보내는 동시에 흑각궁(黑觸弓) 후시(候矢)를 주어 보내니 성(成)이란 사람은 이일(李鎰 \*순변사(巡邊使))의 사위이기 때문이다. 저녁때 이영남(이영남) 윤동구(尹東耆)가 보러 왔었다. 고성 현령(固城縣令) 조응도(趙凝道)도 보러 왔었다. 이날 새벽에 좌우도 체탐인(體探人)을 영등(永登)등지로 보냈다.

13일(병인) 맑음. 조그마한 산등 위에 소포(幬)를 치고 순천, 광양, 방담, 사도, 우후 그리고 발포등 여러 장수들과 편갈라 활을 쏘아 승부를 다투다가 날이 저물어 배로 내려왔다. 밤에 들으니 경상도 우수사에게 선전관 도연량(都彦良)이 와서 있다고 했다. 이날 밤 달빛은 배 위에 가득 차고 혼자 앉아서 이생각 저생각에 온갖 근심은 가슴을 치밀어 자려야 잠이 오지 않다고 닭이 울어서야 어렵듯이 잠이 들었다.

14일(정묘) 맑음. 선전관 박진종(朴振宗)이 왔다. 또한 선전관 영산령(寧山令) 예윤(禮胤)이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같이 왔는데 그들에게서 피난 중인 임금의 사정과 명나라 장수들의 하는 짓을 들으니 참 통탄스러웠다. 나는 우수사(\*이억기)의 배에 뚫겨 타고 선전관과 이야기하며 술을 두어 순배 나누자, 경상도 수사 원풍중(平仲 \*원균)이 와서 술주정을 부리므로 온 배 안 장병들이 분개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 고약스러움은 정말로 말할 길이 없었다. 영산령(寧山令)이 취해 넘어져 정신을 못차리니 우습다. 이날 밤, 두 선전관이 돌아갔다.

15일(무진) 맑음. 아침에 낙안 군수(\*신호(申浩))가 보러 왔었다. 조금 지나서 윤동구(尹東耆)가 그 대장(\*원균)의 장계한 초본을 가지고 왔는데 그 고약스러움은 말할 길이 없었다. 순천, 광양이 보러 왔었다. 늦은 아침에 조카 해( )와 아들 울(蔚)이 윤 봉사(奉事) 제현(齊賢)과 함께 왔다. 점심 나절 과녁을 걸어 놓은 곳으로 가서 순천, 광양, 사도, 방담들이 승부를 서로 겨루는데 나도 한몫들어 쏘았다. 저녁에 배에 돌아와 윤봉사와 잔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16일(기사) 맑음. 아침에 적량(赤梁) 만호 고여우(高汝友) 감목관(監牧官) 이효가(李孝可) 이응화(李應華) 강응표(姜應彪)들이 보러 왔었다. 각 고을 공문과 숫장에 대한 처결을 하여 주었다. 조카 해( )와 회( )가 돌아갔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베개를 베고 누워 신음하다가 명나라 장수가 중도에서 늦추며 머뭇거리는 것은 무슨 땀 꺾이 없지 않은 것 같다는 말을 들으니 나라를 위해서 걱정이 많은 중에 일일이 이와같이 더욱 더 한심스러워 눈물을 지었다. 점심때 윤봉사에게서 관동(館洞 \*서울) 아주머니가 양주 천천(楊州泉川 \*양주군 회천면)으로 피난갔다가 거기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고 울음이 터져 나음을 참지 못하였다. 어찌 세상일이 이렇게도 차가운고 장사는 누가 말야 치렀는지? 대진(大進)은 먼저 세상을 떠났다 하니 더욱 더 쓰린 일이다.

17일(경오) 맑음. 새벽에 큰 바람이 불었다. 아침에 순천, 광양, 보성, 발포와 이응화(李應華)가 보러 왔었다. 변존서(卞存緒)는 병으로 인해서 돌아갔다. 경상도 수사가 군관을 시키어 진양(晉陽 \*진주)의 긴급 보고서를 보냈는데 이제독(李提督 \*이여송(李如松))은 지금 충주(忠州)에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적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분당질을 치고 있으니 통분 통분하다. 종일토록 큰 바람이 불어 마음이 산란하였다. 고성(固城)원이 군관을 보내어 문안하고 또 추로(秋露)와 쇠고기 음식 한꼬치와 꿀통을 보냈는데 복(服)을 만난 중이라 받기가 미안했다. 정으로 보낸 것이라 돌려 보낼 수도 없으므로 군관들에게 주었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일찍 선실로 들어갔다.

18일(신미) 맑음. 이른 아침에 몸이 몹시 불편하여 온백원(溫白元) 4알을 먹었다. 아침 후에 우수사와 가리포(加里浦)가 보러 왔었다. 이윽고 설사를 하고 나니 조금 편안해진 듯하다. 종 목년(木年)이 해포(蟹浦 \*아산 해암)로부터 온 편에 어머니가 안녕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곧 답장을 써서 돌려 보내며 미역 5동을 집에 보냈다. 전주 부윤(\*권율(權慄))이 공문을 보냈는데 순찰사의 직임까지 겸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도장은 찍히지 않았으니 까닭을 모르겠다. 방담 첨사가 왔었다. 대금산(大金山)과 영등(永登)등지의 탐방군들이 와서 보고하는 말이 [왜적들이 나타나기는 하나 그리 대단한 흉모는 없다]고 한다. 새로 협선(挾船) 2척을 만드는데 못이 없다고 하였다.

19일(임신) 맑음. 아침밥을 윤 봉사와 함께 먹는데 여러 장수들이 몹시 권하고 몸은 불편

해도 억지로 고기를 먹게되니 더욱 비감하다. 순찰사 공문에 명나라 장수 유원외(柳員外 황상)의 통첩에 의하여 명나라 군대가 부산 바다 어귀를 벌써 끊어 막았다 한다. 공문 받은 확인서를 쓰고 또 공문에 관한 보고도 써서 보성 사람을 시켜서 보냈다. 순천이 쇠고기등 일곱가지 먹을 것을 보내 왔다. 방담과 이홍명(李弘明)이 보러 왔었다. 기숙흥(奇叔欽)도 보러 왔었다. 영등(永登) 정찰 부대가 와서 다른 변고는 없다고 보고하였다.

20일(계유) 맑음. 새벽에 대금산(大金山) 정찰 부대의 보고도 영등(永登)과 마찬가지로였다. 순천이 다녀갔다. 소비포(所非浦) 권관이 다녀갔다. 오후에 정찰부대가 와서 아뢰기를 왜선은 형적도 없다고 하기에 본영 군관에게 왜적의 물건을 실어 오는데에 관한 편지를 써서 흥양 사람을 주어 보냈다.

21일(갑술) 새벽에 출발하여 거제(巨濟)의 유자도(柚子島 \* 사등면(沙登面))있는 한바다에 이르니 대금산 정찰부대가 와서 적의 출입이 여전하다고 한다. 저녁에 우수사와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 하였다. 이홍명이 다녀갔다. 오후 2시쯤부터 비가 내려 농작물이 조금 소생하게 되었다. 이영남(李英男)이 다녀갔다. 원수사가 거짓 내용으로 공문을 돌려 큰 부대를 소동시켰다. 진중에서도 이렇게 속이니 그 음흉하고 고약한 것을 이루말할 수 없다. 밤에 바람이 미친 듯 불고도 또 비가 내렸다. 새벽녘에 이르러 거제 선창(\* 거제면 농하리)에 배를 대니 곧 22일이다.

22일(을해) 비. 비. 사람들이 바라던 참에 아주 흡족하였다. 늦은 아침에 나대용(羅大用)이 본영에서 돌아왔는데 송시량(宋侍郎 \* 응창(應昌))의 통첩과 그의 파견원, 본도 도사(都事) 상호군(上護軍)을 지낸 선전관 한사람등이 온다는 기별을 가지고 왔다. 송시량의 파견원이 전선(戰船)에 대한 것을 알아보러 오는 것이라고 하므로 곧 우후(虞侯)를 정하여 영접하도록 내보냈다. 오후에 칠천량(漆川梁)으로 옮겨 왔다. 접대할 절차를 문의하기 위해 나대용을 보냈다. 저녁에 방담이 와서 명나라 관리를 접대할 일에 대하여 말하였다. 경상 우수사의 군관 김준계(金遵繼)가 와서 저희 장수 의사를 전하고 갔다. 비가 종일 그치지 않았다. 흥양 군관 이호(李琥)가 죽은 보고를 받았다.

23일(병자) 새벽에는 흐리기만 하고 비가 오지 않더니 늦게는 비가 오락가락 하였다. 우수사가 오고 이홍명도 왔다. 경상 우병사(右兵使 \* 선거이(宣居怡)) [군관이 와서 적에 관한 정보를 전하고 갔다. 본도 병사의 편지와 서류가 왔는데 창원(昌原)의 적을 토벌하려고 하나 적의 형세가 사나워서 경솔히 나가지 못한다]고 하였다. 저녁때 아들 회( )가 와서 전하되 명나라 관원이 영문에 와서 배를 타고 이리로 돌아온다고 하였다. 어두워진 후에 경상도 수사가 와서 명나라 관원 접대하는 일을 의논하였다.

24일(정축) 비가 오다 말다 하였다. 아침에 진을 거제(巨濟)앞 칠천량(漆川梁 \* 거제도 하청면) 바다 어귀로 옮겼다. 나대용이 명나라 관원을 사량(蛇梁 \* 통영군 원량면 양지리) 뒷 바다에서 발견하고 먼저 와서 전하되 [명나라 관원과 통역 표헌(表憲)과 선전관 목관흥(睦光欽)이 같이 온다]고 하였다. 오후 2시쯤에 명나라 관원 양보(楊甫)가 진문에 당도하므로 우별도장(右別都將) 이설(李濶)을 시켜 나가 맞이하여 배에까지 이도해 오니 무척 기뻐하는 모양이었다. 내 배로 오르도록 청하여 굳이 사양하며 앉지 않고 선채로 한시간이 지나도록 이야기하며 우리 해군이 장하다고 무척 칭찬하는 것이었다. 예물단자를 준즉 처음에는 굳이 사양하는 듯하다가 결국 받고는 무척 기뻐하며 두번 세번 감사하는 것이었다. 밤에 아들 회가 본영으로 돌아갔다.

25일(무인) 맑음. 명나라 관원과 선전관들은 어제 취한 술에 쉬이 깨지 않는 모양이었다. 아침에 다시 통역관 표헌(表憲)을 청하여 명나라 장수가 무어라고 하던가를 물으니, 명나라 장수의 말은 무어라는지 알수없고 다만 왜적을 쫓아 보내려고만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 역관의 말로는 송시량(宋侍郎)이 해군의 허실을 알고자 하여 자기가 데리고 온 야불수(夜不收) 양보(楊甫)를 보낸 것인데 해군이 이렇게도 장하니 기쁘기 비할데 없다고 하였다. 늦게 명나라 관원이 본영으로 돌아갔는데 체자(帖字)로 준것도 있다. 오정때 거제 앞 유자도(柚子島)바다 어귀로 진을 옮기고 우수사(\* 이억기)와 함께 한참 동안 군사일을 의논하였다. 광양이 오고 최천보(崔天寶) 이홍명(李弘明)이 와서 바둑을 두었다. 저녁때에 조봉(趙鵬)이 보러 와서 이야기하다 갔다. 초저녁에 영남에서 오는 명나라 사람 두사람과 우감사(右監司) 영리(營吏) 한사람과 접반사(接伴使) 군관 한사람이 진문에 이르렀으나 밤이 깊어 들이지 아니하였다.

26일(기묘) 비. 비. 아침에 명나라 사람들을 만나 보니 그는 절강(浙江)의 포수(砲手) 왕경득(王敬得)인데 글자는 조금 알고 있으나 한참 동안이나 서로 이야기하여도 알아듣지 못하

여 답답하였다. 순천이 노루 고기를 차려 내놓았는데 광양이 오고 우수사 영공(令公)이 와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지냈다. 가리포(加里浦)는 청했으나 오지 않았다. 비가 저녁 내내 그치지 않았으며 밤새도록 계속하였다. 밤 10시쯤부터 바람이 크게 불어 배들이 가만 있지 못하였다. 처음에는 우수사 배와 맞부딪치는 것을 겨우 구해 냈더니 또 발포(鉢浦 \* 만호 황정록(黃廷祿))가 탄 배와 마주쳐서 부서질 뻔하다가 겨우 면하고 송한련(宋漢連 \* 공의 군관)이 탄 협선(挾船)은 발포 배와 부딪쳐 많이 상했다고 한다. 늦은 아침에 경상도 우수사가 보러 왔다 갔다. 순변사(巡邊使) 이빈(李賓)이 공문을 보냈는데 지나친 말이 많이 쓰였으니 우습다.

27일(경진) 풍우에 부딪기 때문에 진을 유자도(柚子島)로 옮겼다. 협선(挾船) 3척이 간 곳 없더니 늦게야 들어왔다. 순천과 광양이 와서 노루고기를 차렸다. 경상도 병사(兵使 \* 우병사 최경회(崔慶會))의 답장이 왔는데 그로 보아 원 수사는 송경략(宋經略 \* 응창(應昌))이 보낸 화전(火箭)을 혼자서 쓰려고 꾀하고 있는 꼴이다. 우습다. 전라도 병사(\* 선거이(宣居怡))의 편지도 왔는데 창원(昌原)의 적들을 오늘 토벌하러 가나다 비가 아직 개지 않아 나가치지 못했다고 하였다.

28일(신사) 비. 종일 비가 내렸다. 순천과 이홍명(李弘明)이 와서 이야기하였다. 광양 사람이 장계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독운(督運) 임발영(任發英)은 위에서도 아주 옳지 않게 여기어 조사 처벌하라는 분부가 있고, 또 해군의 일족(一族) 징발에 대한 일에도 그전과 같이 하라는 명령이 있다고 했다. 비변사(備邊司)의 공문이 왔는데 광양 현감은 그대로 유임시킨다는 것이었다. 관보를 가지고 왔기에 들여다 본즉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용호장(龍虎將) 성응지(成應祉)에게 배를 바꾸어 탈수 있게 하기 위한 명령서를 써주어 본영으로 보냈다.

29일(임오) 비. 비. 방답(防踏) 첨사와 영등(永登) 만호 우치적(禹致績)이 보러 왔었다. 접반사(接伴使 \* 김수(金粹)) 도원수(都元帥 \* 김명원(金命元)) 순변(巡邊 \* 이빈(李賓)) 순찰사(巡察使 \* 권율(權慄)) 병사(兵使 \* 선거이(宣居怡)) 방어사(防禦使 \* 이복남(李福男))들에게 공문을 보냈다. 오후 8시쯤에 변유현(卞有憲)과 이수(李修)들이 보러 왔었다.

30일(계미) 종일 비. 오후 4시쯤에 잠깐 개는 듯하더니 도로비가 왔다. 아침나절 윤봉사(尹奉事) 변유현(卞有憲)에게 적에 관한 일을 물었다. 이홍명(李弘明)이 보러 왔었다. 원수사가 송경략(經略)이 보낸 화전(火箭)을 혼자서 쓰려고 꾀하던 중 병사의 공문에 따라서 나눠 보내라고 하니까 공문도 내려고 하지 않고 무리한 말만 자꾸 지껄이더라고 하니 우습다. 명나라 고관이 보낸 불로 적을 치는 무기인 화전(火箭) 1천 5백 30개를 나눠 보내지 않고 독차지해서 쓰려고 하고 있다니 그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저녁때 조봉(趙鵬)이 와서 이야기하였다. 남해(南海) 기효근(奇孝謹)의 배가 내 배곁에 대었는데 그 배속에 어린 색시를 싣고서는 남이 알까봐 두려워한다. 가소롭다. 이같이 나라가 위급한 때를 당해서도 예쁜 색시를 태우고 놀기까지 하니 그 마음씀이야말로 이를 길이 없다. 그러나 그 대장이라는 원수사부터 역시 그러하니 어찌하랴. 윤봉사는 일이 있어서 본영으로 돌아갔다. 군량미(軍糧米) 14점을 실어 왔다.